



제남도서관 문해력 교실  
공공도서관 누리집서 신청

제남도서관은 내달 4일부터 13일 까지 특별 프로그램 '요즘 애들의 문해력 성장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바칼로레아(IIB) 교육의 핵심인 학생 중심·자기주도적 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스스로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말과 글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과정은 관심 주제 선정 및 탐구 질문 만들기, 도서관 자료 조사 기반 슬라이드 초안 구성, 발표용 시각자료 작성 및 발표 대본 준비, 최종 발표·공유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운영 대상은 예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김채현기자

'오늘은 도서관에서 놀자'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서귀포도서관이 오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오늘은 도서관에서 놀자'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말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됐으며, 독서지도사 김미란 강사와 동화구연가 정수연 강사의 지도 아래 매주 일요일 오후 2~3시 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온돌마루에서 운영된다. 그림책 읽기와 놀이를 결합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유연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1월 '사계절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족·박물관·언어 생활·여행·지구 등 매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주제의 활동으로 꾸려진다.

참여 대상은 예비 초등학생 1~3학년 15명이다. 공휴일인 3월 1일과 5월 24일을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참여할 수 있다.

김채현기자

## 원도심 곳곳에 스며든 거리의 선율

제주시 아트플랫폼 앞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상설 버스킹 체계 구축

제주시 원도심의 골목과 광장에 음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원도심을 거점으로 연중 운영되는 상설 버스킹 체계를 구축하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앞서 제주지역 버스킹은 축제나 행사에 맞춰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상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원도심 문화거점과 연계한 공연을 통해 예술과 일상이 맞닿고, 공연이 지역 상권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설 버스킹 무대는 제주시 아트플랫폼 앞과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두 공간은 축제나 행사에 맞춰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상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원도심 문화거점과 연계한 공연을 통해 예술과 일상이 맞닿고, 공연이 지역 상권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설 버스킹 무대는 제주시 아트플랫폼 앞과 서귀포시 칠십리야



'빈공간 아트페어 2026' 전시장 모습.

아트스페이스 빈공간 제공

의공연장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두 공간은 축제나 행사에 맞춰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상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원도심 문화거점과 연계한 공연을 통해 예술과 일상이 맞닿고, 공연이 지역 상권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문화예술종합정보포털 웹사이트 '제주인늘다' 누리집을 내달 중 확대 개편해 버스킹 전용 예약·운영 기능을 강화한다. 공연 정보 확인부터 참여 신청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상설 버스킹 공연 접수는 오는 2

월 말부터 '제주인늘다'를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제주도는 두 지역의 유동인구를 고려해 향후 공연 시간과 일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국장은 "상설 버스킹을 통해 원도심이 도민의 일상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면서 "예술인과 시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연륜의 안목, 나눔으로 이어지다

제주공예박물관 개관 5주년 '새해 나눔 잔치'  
오는 24일까지… 바자회·한사코 밴드 공연 등

제주공예박물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미술품 바자회와 경매, 공연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행사 '새해 나눔 잔치'를 마련했다.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예술인마을을 제주공예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의 모태가 된 문화공간 '스페이스 앤나루'의 출발점이 양의숙관장의 소장품전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거래의 장을 넘어, 한 전문가가 평생 쌓아온 안목과 무형의 유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제주 출신이자 KBS 'TV쇼 진품명품'의 감정위



한사코 밴드.

원으로 활동해 온 양 관장은 2016년 저지예술인마을에 스페이스 앤나루를 열며 자신의 수집 철학을 제주에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제주공예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되며 공공 문화 공간의 역할을 확장해 왔다.

행사는 20일부터 23일까지 '프리뷰 및 바자', 24일 오후 3시 '본 경매'로 이어진다. 프리뷰 기간에는 출품작을 자유롭게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본 경매는 전문 경매사의 진행으로 열린다. 출품작은 양 관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선별한 소장품과 뜻을 함께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다.

행사의 피날레는 24일 오후 4시 30분 열리는 '한사코 밴드(퍼포머 강영덕)'의 공연이 장식한다. 전통 음악의 결을 바탕으로 현대적 요소를 결합해 박물관이 지향해 온 '시간을 품은 예술의 현대적 재해석'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행사 수익금 일부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지원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양의숙관장은 "전문 미술 경매를 현장에서 경험하는 기회가 제주 미술 시장의 저변과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부 : 김창기 · 모 : 문춘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형동 정촌마을회 회장 양현철**  
노인회장 양형식 부녀회장 문애숙  
청년회장 양만진 장학회장 문봉수

## 승진

**서기관**



유은숙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심의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계유씨 제주도종친회**  
회장 유병환 외 종친 일동

## 승진

**서기관**



박준수

서기관(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제자매 일동**  
(박세영·미선·준혁)

## 승진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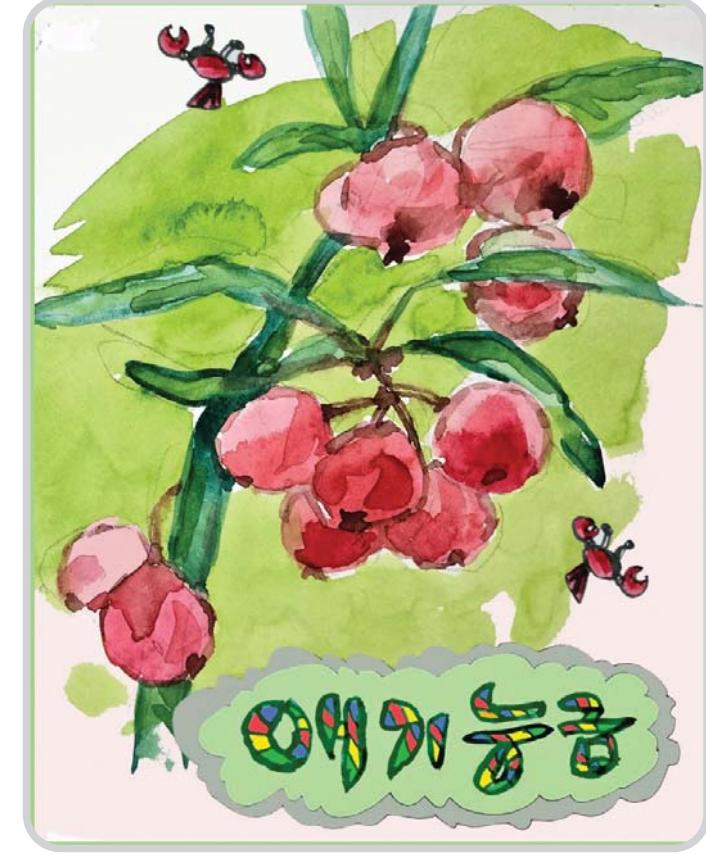
고희신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가족 일동**  
(양동진, 김용숙, 고태진, 김순이, 양인석, 은진, 유진, 은호)

고재만의  
**제주어기능금**

<484>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제만그림글자 응용>



으 맹 이 훌멘: "누님, 나 애기능금이에 행는 말 안 들어나신디에"

즘 네 훌 없저: "경호냐. 능금낭에서 오는 훌이라는 말이여. 덕구

네 집 우영팟엔 애기능금낭이 맷 개 싱거전 이서라.

하르바지 훌멘: "야으덜아 이제부띠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시인이 씬 제주어시집 '개무로사 못살리카' 옌 훌 디서 '애기능금'에 대호 시 이와을 헤여보켜."

### - 애기능금 -

비록, 내 사랑 나를 멀리 헤주마는  
그 심송삼승 묘음 지드리고 지드리단

비록, 나 심장 잘도 죽아 죽어마는  
흔 빙도 테와지지 안 헤연 구짝 훌 묘음

비록, 그립다 보고정 훌다 말은 못해도  
안적도 사랑 훌다 험말로 사랑 훌다

드춤내, 이녁 외면에 누르띠전 막 죽어진 봄  
개도 나 가심 꽈득하고 별경 훌다

<계속>

### 제주어 풀이

\*스랑 : 사랑 \*멀리흙주만은 : 멀리하지만 \*심송삼승 : <어찌> 싱송생승  
\*묘음 : 마음 \*지드리고 : 기다리고 \*지드리단 : 기다리고 있다가  
\*죽어졌주마는 : 죽어졌지만 \*꿰와시다 : <어찌> 비틀어 꿔와지다  
\*안릉연 : 하지 않고 \*구짝흘 묘음 : 곧은 마음  
\*보고정 훌다 말은 못해도 : 보고싶다고 하진 못해도  
\*안적도 : 아직도 \*스랑흘다 : 사랑한다 \*이녁 : 그대  
\*누르띠전 : 누울러져서(누르뜨다, 누르뜨다, 누르트다, 놀뜨다, 농뜰다)  
\*죽어진 봄 : 죽어진 봄 \*제도 : 그래도  
\*가심 : 가슴 \*꽈득하고 : 가득하고  
\*별경 훌다(‘별경 훌다’의 작고 여린 말) : <그립> 별경다.